5/21/2023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안녕하세요. 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신뢰해 주신 목회자 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당신과 함께 하는 말, 큰 영광입니다. 내 이름은 이스라엘 탈라만테스 이고 나는

B4의 히스패닉 교회 개척인 Centro Victoria의 목사이고, 우리는 일요일에 만납니다.

오전 10시 30분 주차장 바로 맞은편 서쪽 건물에서 아는 사람 있으면

번성하는 히스패닉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시간은 일요일 10:30

다시 한 번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난 4~5주 동안 우리는

“예수님 보기”라는 설교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의 렌즈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우리는 그들의 상호 작용, 감정 및

우리는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이 8주 동안 여러분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나십시오. 그의 말씀을 읽을수록

그를 알아가십시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소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매우 유명한 구절을 읽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당신은 교회에서 자랐다면 내가 말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당신이 성장하지 않았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우리가 배울 캐릭터는 자신만의 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일학교 때 부르는 노래. 내가 누구에 대해 말하는지 아십니까?

유명한 삭개오. 노래는 어떻게 되나요? 삭개오는 작고 아담한 사람이었습니다.

꼬맹이? 그는 보고 싶었던 주님을 위해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 노래도 스페인어로 된 거 아시죠? Zaqueo era un chaparrito 아시 퀘 비비아 제리코 ,

y cuando Jesus paso por ahi aun 지코모로 수비오 ...

이 사람은 워낙 인기가 많아서 자작곡이 생겼다.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나

성경을 펴거나 누가복음 19장부터

1절에서.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읽을 것이고 읽는 동안 잠시 멈출 것입니다.

구절.

문맥

나는 당신에게 약간의 맥락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삶. 예수 생애의 마지막 주간은 여기 여리고 성에서 시작되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낮고 예루살렘은 해수면보다 높으므로 예수님은

15~20마일 정도 오르막길을 가야 그가 있을 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 십자가로 가는 길을 가셨지만, 죽어가는 길에도 살아야 할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정거장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봅시다. 1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지나가고 있었다.

이것은 흥미로운데 왜냐하면 이전 장인 누가복음 18장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 다가와 다음과 같이 묻는 부자 청년의 또 다른 이야기합니다.

질문: 누가복음 **18:18 -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훔치고**,** 험담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실제로 좋은 사람입니다**.**

22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합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천국에서**.** 그럼 저를 따라오세요**.” 23** 그가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 이는

그는 매우 부유했습니다**. 24**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부자는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의 왕국**! 25** 사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습니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26**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2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당신의 상황이 지금 당장은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당신편이시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므로 믿으십시오!

계속해서 3-3절을 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몇 가지를 주목하고 싶다

첫째 - 몇몇 역사가들은 2000년 전 평균 남성의 키가 약 5피트였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이 2000년 전의 평균 키라면 누가는 삭개오를

키가 작은 남자라면 꽤 키가 작았을 것입니다. 나는 6, 6'1이므로 나에게 그는 틀림없이

꽤 짧습니다.

2위 - 자, 왜 누가는 키가 작다는 사실을 강조했을까요? 그는

세금 징수원이었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 하지만 아닙니다! 그는 키가 작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나는 시도했다

누가가 키가 작다는 사실을 언급한 이유를 찾기 위해.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답이 없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겠습니까?

- 예수님이 화장실에 가신 적이 있나요? 그는 예수였으므로 그렇게 하지 않을 힘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골리앗의 발이었을까?

성령께서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만일 성령께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셨다면,

그는 그것을 썼을 것입니다.

성경은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고만 말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우리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작게 느껴지는 영역, 우리가 측정하지 못하는 영역, 사람들이

우리보다 키가 크고, 사람이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우리 모두가 느끼는

작은. 그리고 우리는 작게 느끼기 때문에 모두 부족합니다.

나는 잠시 취약하고 싶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다는 사실이 기적이다. 왜

기적? 오늘 아침에 여기 있는 데 필요한 것이 없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내 억양이 끔찍해서 사람들이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모든 감정들

부족함이 내 마음에 있었다. 그러자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불안이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불안하고 두려웠으며 원수의 거짓말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내적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 작게 느껴지지 않도록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것은 우리를 어둠의 장소로 데려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게 느껴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우리가 측정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달려야 합니다. 우리는 플라타너스 나무에 오르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우리의 결점은 우리를 그분의 은혜로 인도해야 합니다.

삭개오는 군중/사람들 너머를 볼 수 없었고, 그들은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올라갔다.

플라타너스 나무.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 들였다.

다음 구절로 넘어가기 전에 세리가 누구였는지 복습해 봅시다.

군중의 그림.

Zaccheaus 라는 단어는 순결, 순진,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는

순수하고 순진하고 의로운 것의 반대. 사람들은 그를 싫어했습니다. 세리들은

도둑과 살인자 사이.

로마 정부을 위해 일하고…, 그래서 그들은 반역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는 세리였을 뿐만 아니라 수석 세금 징수 원. 그는 한 지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힘이 있었다.

로마 제국 기계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삭개오는

인두세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로마의 공기를 호흡하는 데 대한 세금이었습니다. 당신이 살아 있고 14세의 남자라면

65세 까지 또는 12세에서 65세까지의 여성은 인두세를 내야 했습니다.

소득세, 수입세, 도로세, 어류세. 당신은 그물과 물고기 한 마리당 세금을 냈습니다.

지상세, 카트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분노했을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의 집에 유하러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에 대해 느꼈습니까?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오!) 그들은 "그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도다"라고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바로 그 무리

결점은 예수님을 중얼거리고, 투덜거리고, 판단하고, 비판했던 바로 그 무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으셨을 때. 군중은 아마도 예수님을 원했지만 사람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어울리십시오.

우리는 교회에서 몇 번이나 군중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누가 들어가는지, 누가 의로운지, 누가 순결한지, 누가 충분히 좋은지 결정합니다.

때때로 나의 종교성은 방해가 됩니다. 이렇게 해야 순서대로 이렇게 보여요

소속. 나는 군중이 된다.

예(백그라운드에서 키 재생)

우리 아빠가 우리 도시의 범죄 조직의 갱단 두목에게 손을 뻗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내 판단 때문에 그가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종교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는 변화되어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종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데 방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은혜는 이론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불가능.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교만과 행동으로 우리는

불명예스러운 사람들. 베자민은 예수를 필요로 하고 원했지만 나는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들러 그를 만나셨고 그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신청

아무도 당신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당신이 소속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면, 오늘 아침,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군중 속에서 그는

당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는 당신과 관계를 갖고 싶어합니다.

결론

삭개오가 회개하고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고 했읍니다. 또, 거짓말 한 사람들에게 4배로 갑겠다고 합니다.

9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10**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부족하게 느끼는 사람들. 예수님은 심지어 군중도 구하러 왔다. 우리 중 누구도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24절에

23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24**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족했기 때문에 군중이 되었습니다.

방해가 되었다

응답기도

오늘 저는 두 그룹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군중에 의해 상처받은 사람들, 종교에 의해 상처받은 사람들,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에 의해 상처받은 사람들

아마도 당신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지만 우리의 행동이 당신을 밀어냈을 것입니다.

떨어져 있는 목회자든 지도자든 누구든지 우리는 망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필요합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 당신의 삶.

두 번째 그룹은 저를 포함하여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군중이 된 것과 방해가 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축복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보호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네게 웃으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네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평강을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가 이번 주에 당신과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뵙겠 습니다. 친구를 데려오세요.